

2022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 국세청, 2023. 11

< 주요 내용 >

1.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 전체 회계법인(220개)의 매출액은 5.7조원으로 전기보다 11.9%(0.6조원) 증가하였으나, 전체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

- * 전년대비 증가율 : 11.3%(FY20) → 16.8%(FY21) → 11.9%(FY22)

- (회계감사) 1.9조원으로 지속 증가추세*

- * 전년대비 증가율 : 15.8%(FY20) → 11.7%(FY21) → 16.7%(FY22)

- (경영자문) 2.0조원으로 증가율은 크게 감소*(M&A 감소 등)

- * 전년대비 증가율 : 9.3%(FY20) → 28.8%(FY21) → 8.4%(FY22)

- (세무자문) 1.5조원으로 점진적 증가추세*

- * 전년대비 증가율 : 9.9%(FY20) → 10.1%(FY21) → 13.3%(FY22)

- (영업이익) 1,616억원으로 전년대비 큰 폭 감소*(△20.1%)

- * 인건비·지급수수료 증가, 경기 불황에 따른 대손상각 증가 등에 기인

- 외부감사 실적은 총 32,478건으로 전기보다 12.6% 증가하였고, 평균 감사보수는 50백만원으로 4.0% 증가하여 안정화*되는 추세

- * 전년대비 증가율 : 21.2%(FY20) → 3.1%(FY21) → 4.0%(FY22)

-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총 95건, 5,243억원*이며, 사업연도중 실제 배상금액은 386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FY20 5억원, FY21 4억원)

- *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 안진) 4,039억원, 디아크(다산) 454억원 등

2. 시사점 및 향후 감독방향

- 회계법인의 성장세 둔화가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품질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 체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



- 금감원은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등록요건 점검 등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저연차 회계사 관리, 일관성 있는 보수 책정, 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 점검, 비감 사업무 독립성 강화 등을 유도할 계획

I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주요내용

- (회계법인 수) 전체 220개로 전기말보다 11개 증가, 소속 회계사 100명 이상(대형)은 20개, 40~99명(중형)은 26개, 40명 미만(소형)은 174개
- (매출액) 총 5.7조원으로 전기보다 0.6조원(11.9%) 증가, 이 중 등록법인은 4.3조원(비중 76.6%), 4대법인은 2.8조원(49.5%)
 - 부문별 매출액은 경영자문 2.0조원(비중 35.2%), 회계감사 1.9조원(33.9%), 세무자문 1.5조원(27.7%), 기타 0.2조원(3.3%)
- (영업이익) 총 1,616억원으로 전기보다 407억원(△20.1%) 감소하였으며, 특히 4대법인의 영업이익은 344억원으로 전기보다 582억원(△62.9%) 감소
- (감사실적*) 총 32,478건으로 전기보다 3,626건 증가, 이 중 등록법인은 18,969건(58.4%), 4대법인은 4,269건(13.1%)
 - * 개별재무제표 감사실적(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포함)
- (감사보수*)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4.0%)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화되는 추세
 - * 회계법인의 외감법 법정감사 매출금액 / 외부감사 실적
- (소송현황)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총 95건, 소송금액은 5,243억원*으로 전기보다 651억원 감소하였고, 패소 등으로 인한 배상금액은 386억원
 - *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 안진) 4,039억원, 디아크(다산) 454억원 등

II

시사점

- ① 회계법인 매출은 증가추세이나 영업이익은 큰 폭 감소
 - 新외감법 시행 및 외부감사대상회사 증가 등으로 외부감사부문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전체 매출액의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

- * 감사부문 매출 전년대비 증가율 : 15.8%(FY20) → 11.7%(FY21) → 16.7%(FY22)
- ** 전체 매출 전년대비 증가율 : 11.3%(FY20) → 16.8%(FY21) → 11.9%(FY22)
- 한편, 인건비*, 지급수수료, 경기불황에 따른 대손상각 및 출장비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
 - * 인건비 : 33,082억원(FY21) → 37,116억원(FY22)
 - ** 영업이익 : 1,787억원(FY20) → 2,023억원(FY21) → 1,616억원(FY22)

⇒ 향후 회계법인의 수익성 감소가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체계를 공고히 유지할 필요

② 회계법인의 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4대 회계법인의 경우 5년 미만의 저연차 회계사가 57.8%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미만 등록회계사의 89.2%가 근무
- 숙련도 부족에 따라 회사의 수검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일부 불만도 제기

⇒ 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중요 계정과목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③ 부실감사 관련 책임 확대

-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이 지속 제기되고 실제 부실감사관련 책임이 현실화

⇒ 보다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과 더불어 배상능력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

④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소폭 증가

-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보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4대 회계법인의 증가율*이 높았음
 - * 4대 회계법인의 평균 감사보수 전년대비 증가율 : 8.9%

⇒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회계법인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감사위험과 무관하게 부당한 감사 보수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⑤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충실한 작성 필요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는 감사인 선임 기초자료 및 감사품질 판단자료로 활용되는 바, 충실하고 정확한 작성·공시 필요



⇒ 외주용역을 주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특수관계자와 용역거래 등을 하는 경우 주식공시를 정확히 할 필요*

* 과거 지적사례 : 회계법인 임원이 지배하는 기업 관련 자금대여, 채권·채무잔액, 매입내역 등을 주석으로 미공시

⑥ 경영자문 등 비감사업무 수행시 위험평가 등 점검강화 필요

- 회계법인의 경영자문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중 비중은 2021회계연도부터 감사부문 매출비중을 상회

* FY22 부문별 매출비중 : 경영자문 35.2%, 감사 33.9%, 세무 27.7%

⇒ 경영자문 등 비감사업역 수임시 위험평가 및 독립성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여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2022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I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 ※ 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3월말 결산법인은 '23.3월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 법인(20개)은 '23.9월말까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1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

1. 회계법인 일반현황

가. 회계법인 수 : 총 220개 (+11개)

- '23.3월말 현재 회계법인(금융위원회 등록)은 220개로 전기보다 11개 증가*

* 증가 11개(호수, 경북, 진평, 권, 윤솔, 혜성, 예광, 송정, 바로, 진산, 정후 신설)

- 규모별로는 소속 회계사가 100명 이상(대형법인)은 20개, 40~99명(중형)은 26개, 40명 미만(소형)은 174개*

* 신설 11개사는 모두 소형법인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이하 '등록법인')은 전기보다 1개 증가(보현)하였으며, 등록법인은 대형(19개)과 중형(22개)에 분포

* 상장회사 감사를 위해 감사품질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공인회계사 수 최소 40명(지방 20명) 이상 등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등록한 회계법인

-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이하 '일반법인')은 179개로 대부분 소형임 (대형 1개, 중형 4개, 소형 174개)

<소속 등록회계사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FY20		FY21 (A)		FY22 (B)		전기대비 변동 (B-A)
소속	100명 이상	19	(18)	20	(19)	20	(19)	-
등록	40 ~ 99명	25	(22)	24	(21)	26	(22)	2
회계사	40명 미만	151	(-)	165	(-)	174	(-)	9
전체		195	(40)	209	(40)	220	(41)	11

* ()는 등록법인

나. 등록회계사 : 총 25,084명 (회계법인 소속 14,805명, 비중 59.0%)

- (등록회계사 분포) 등록회계사는 전체 25,084명으로 전기보다 1,146명(+4.6%) 증가
 - 이중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는 전체의 59.0%인 14,805명으로 전기보다 1,068명 (7.8%) 증가
 - 등록법인 소속은 11,750명으로 전기보다 926명(+8.6%) 증가
 - 4대법인 소속은 6,822명으로 전기보다 522명(+8.3%) 증가하여 전체 대비 비중은 46.1%로 전기보다 0.2%p 증가

<등록회계사 현황>

(단위 : 명, %, %p)

구 분	FY2020		FY2021		FY2022		전기대비 증감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증감률	비중 증감
회계법인 소속	13,004	56.9	13,737	57.4	14,805	59.0	1,068	7.8	1.6
등록법인(41사)	10,335	(79.5*)	10,824	(78.8*)	11,750	(79.4*)	926	8.6	0.6
4대법인	6,135	(47.2*)	6,300	(45.9*)	6,822	(46.1*)	522	8.3	0.2
총 등록회계사	22,861	100.0	23,938	100.0	25,084	100.0	1,146	4.6	

* 전체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중 등록법인 및 4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 4대법인별로는 삼일*(+299명, +13.2%), 안진(+91명, +9.1%)의 증가율이 높은 수준

* 퇴사율 감소와 경력직 채용 등에 기인

<4대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현황>

(단위 : 명, %, %p)

구분	FY2021		FY2022		전기대비 증감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증감률	비중증감
삼일	2,272	36.1	2,571	37.7	299	13.2%	1.6
삼정	1,910	30.3	1,986	29.1	76	4.0%	△1.2
한영	1,113	17.7	1,169	17.1	56	5.0%	△0.5
안진	1,005	16.0	1,096	16.1	91	9.1%	0.1
합계	6,300	100.0	6,822	100.0	522	7.7%	-

- (경력별 현황)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의 경력은 15년 이상이 4,540명(30.7%)이고, 이들 중 등록법인 소속은 3,011명(66.3%), 4대법인 소속은 828명임
- 4대법인의 경우 5년 미만 경력 회계사가 과반수(57.8%)를 차지하는 반면, 4대법인 외 회계법인의 경우 5년 미만 경력 회계사는 9.7%에 불과

<경력별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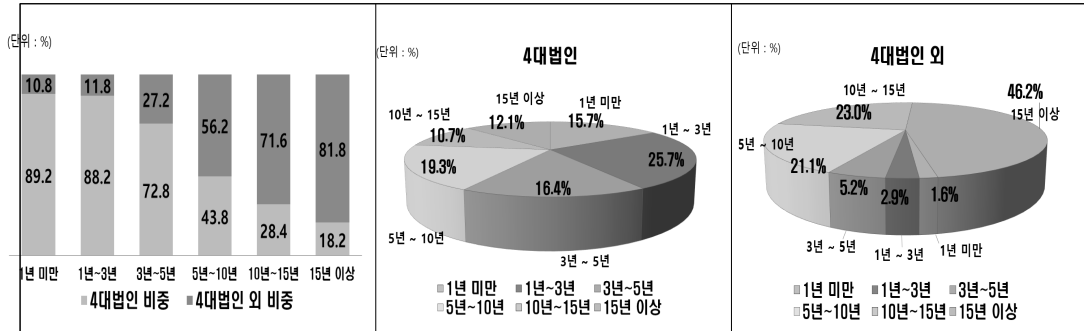
구분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15년	15년이상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수	1,197	1,990	1,537	3,010	2,583	4,540
등록법인 (비중*1)	1,179 (98.5)	1,927 (96.8)	1,404 (91.3)	2,436 (80.9)	1,794 (69.5)	3,011 (66.3)
4대법인 (비중*1)	1,068 (89.2)	1,756 (88.2)	1,119 (72.8)	1,318 (43.8)	733 (28.4)	828 (18.2)
4대법인 외*2 (비중*1)	129 (10.8)	234 (11.8)	418 (27.2)	1,692 (56.2)	1,850 (71.6)	3,712 (81.8)
경력별 구성비*3	8.1	13.4	10.3	20.3	17.4	30.6
등록법인	10.0	16.4	11.9	20.7	15.3	25.6
4대법인	15.7	25.7	16.4	19.3	10.7	12.1
4대법인 외*2	1.6	2.9	5.2	21.1	23.0	46.2

*1 회계법인 소속 경력별 등록회계사 중 등록법인, 4대법인 및 그 외 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비중

*2 4대법인 외 등록법인 + 일반법인의 합산

*3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총원 중 각 경력구간별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

<회계법인 등록회계사 구성>



- 한편, 회계법인에 소속된 수습회계사(미등록회계사)는 1,232명이며, 이 중 4대법인 소속은 1,189명(97%)으로 전기(1002명, 87%)보다 증가
 -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는 회계법인 등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 후 등록 가능
- 4대법인을 제외한 법인에서 43명(4대법인 외 등록법인 35명 및 일반법인 8명)이 실무수습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인력구성 현황)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회계사 중 이사는 3,795명(비중 25.6%)으로 전기(3,535명, 25.7%)보다 260명 증가(△0.1%p)
 -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법인의 이사 비율(이사/등록회계사, 15.3%)이 일반법인(65.3%)보다 현저히 낮음
 - ※ 등록법인의 경우 통합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명의 이사가 다수의 회계사를 활용하여 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인함
 - 회계법인 소속 총인원*은 32,336명으로, 그 중 공인회계사(수습 포함)가 49.6%이고 공인회계사 외 인력은 50.4%로 비중이 비슷함
 - * 등록, 수습회계사 외 변호사, 세무사, IT 전문가 등 전문가, 그 밖의 일반직원으로 구성
 - 그중 4대법인의 공인회계사 비중(59.8%)이 일반법인(29.8%)의 약 2배에 달하는 등 일반법인은 공인회계사 외 인력비중이 높음

<회계법인 인력구성 현황>

(단위 : 명, %)

구분	등록회계사				수습 회계사 (C)	총회계사		기타 인력		총원 (F)
	(A)	이사 (B)	이사비율 (B/A)	전기		(수습 포함) (D=A+C)	비중 (D/F)	(E)	비중 (E/F)	
등록법인(41사)	11,750	1,801	15.3	15.4	1,224	12,974	58.8	9,084	41.2	22,058
4대법인	6,822	524	7.7	7.5	1,189	8,011	59.8	5,396	40.2	13,407
4대법인외(37사)	4,928	1,277	25.9	26.3	35	4,963	57.4	3,688	42.6	8,651
일반법인	3,055	1,994	65.3	64.2	8	3,063	29.8	7,215	70.2	10,278
전체 회계법인	14,805	3,795	25.6	25.7	1,232	16,037	49.6	16,299	50.4	32,336



2. 회계법인 영업현황

가. 전체 매출액 : 총 5조 7,015억원 (+11.9%)

□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은 총 5조 7,015억원으로 전기(5조 972억원) 보다 6,043억원 (+11.9%) 증가

○ 업무별로는 경영자문 2조 41억원(35.2%), 회계감사 1조 9,335억원(33.9%), 세무 1조 5,783억원(27.7%), 기타 1,856억원(3.3%) 順

○ 경영자문부문 매출은 전기(1조 8,494억원)보다 1,547억원 증가(+8.4%)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M&A 감소 등으로 증가율은 둔화*

* 전년대비 증가율 : 9.3%(FY20) → 28.8%(FY21) → 8.4%(FY22)

- 특히, 4대법인을 제외한 등록법인(+13.7%)의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회계감사부문 매출은 외부감사대상 증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확대* 등으로 전기(1조 6,575억원)보다 2,760억원(+16.7%) 증가

* '22사업연도부터 자산 1천억원이상~5천억원미만 회사 포함

- 감사부문 매출은 4대법인(+15.6%) 및 그 외 등록법인(+18.1%) 및 일반법인(+16.4%)의 증가율이 고르게 나타남

○ 세무부문 매출은 경정 및 불복청구 관련 용역, 세무조정 업무 증가 등으로 전기(1조 3,936억원)보다 1,847억원(+13.3%) 증가

<회계법인 업무별 매출액>

(단위 : 억원, %, %p)

업무별 매출액		FY2020		FY2021		FY2022		전기대비 변동		
		금액	비중	금액 (A)	비중 (a)	금액 (B)	비중 (b)	금액 (B-A)	증감률 (B/A-1) ×100	비중 (b-a)
전체 회계 법인	감 사	14,838	34.0	16,575	32.5	19,335	33.9	2,760	16.7	1.4
	세 무	12,662	29.0	13,936	27.3	15,783	27.7	1,847	13.3	0.3
	경영자문	14,362	32.9	18,494	36.3	20,041	35.2	1,547	8.4	△1.1
	기 타	1,778	4.1	1,967	3.9	1,856	3.3	△111	△5.6	△0.6
	합 계	43,640	100.0	50,972	100.0	57,015	100.0	6,043	11.9	-

나. 등록법인 매출액 : 4조 3,679억원 (+12.1%)

□ 등록법인의 매출은 4조 3,679억원으로 전기보다 4,698억원(+12.1%) 증가하였으며,

○ 업무별로는 회계감사(2,359억원, +16.7%)와 세무(1,086억원, +13.8%)의 증가율이 높음

□ 등록법인의 매출 점유율(비중)은 76.6%로 전기(76.5%)보다 0.1%p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영자문이 비중이 0.4%p 증가한데 기인

<등록법인 업무별 매출>

(단위 : 억원, %, %p)

업무별 매출액		FY2020		FY2021		FY2022		전기대비 변동		
		금액	비중	금액 (A)	비중 (a)	금액 (B)	비중 (b)	금액 (B-A)	증감률 (B/A-1) ×100	비중 (b-a)
등록 법인	감 사 (점유율)*	12,612 (85.0)	37.9	14,110 (85.1)	36.2	16,469 (85.2)	37.7	2,359 (0.1)	16.7	1.5
	세 무 (점유율)*	7,268 (57.4)	21.9	7,883 (56.6)	20.2	8,969 (56.8)	20.5	1,086 (0.2)	13.8	0.3
	경영자문 (점유율)*	12,666 (88.2)	38.1	16,252 (87.9)	41.7	17,699 (88.3)	40.5	1,447 (0.4)	8.9	△1.2
	기 타 (점유율)*	692 (38.9)	2.1	735 (37.4)	1.9	542 (29.2)	1.3	△193 (△8.2)	△26.3	△0.6
	합 계 (점유율)*	33,239 (76.2)	100.0	38,981 (76.5)	100.0	43,679 (76.6)	100.0	4,698 (0.1)	12.1	-

* ()는 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에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다. 4대법인 매출액 : 2조 8,219억원 (+11.4%)

□ 4대법인 매출액은 2조 8,219억원으로 전기보다 2,882억원(+11.4%) 증가하였으며,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전기(49.7%)보다 소폭 감소(△0.2%p)

<4대법인(전체) 업무별 매출액>

(단위 : 억원, %, %p)

업무별 매출액		FY2020		FY2021		FY2022		전기대비 변동		
		금액 (A)	비중 (a)	금액 (B)	비중 (b)	금액 (B)	비중 (b)	금액 (B-A)	증감률 (B/A-1) ×100	비중 (b-a)
4대 법인	감 사 (점유율)*	7,193 (48.5)	33.1	7,999 (48.3)	31.6	9,250 (47.8)	32.8	1,251 (△0.4)	15.6	1.2
	세 무 (점유율)*	4,383 (34.6)	20.3	4,676 (33.6)	18.5	5,357 (33.9)	19.0	681 (0.4)	14.6	△0.5
	경영자문 (점유율)*	10,040 (69.9)	46.4	12,662 (68.5)	50.5	13,611 (67.9)	48.2	949 (△0.6)	7.5	△1.7
	합 계 (점유율)*	21,617 (49.5)	100.0	25,337 (49.7)	100.0	28,219 (49.5)	100.0	2,882	11.4	-

* ()는 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에서 4대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 4대법인 중 매출액은 삼일(9,722억원)이 가장 크고, 매출증가율은 감사 및 경영자문의 매출 증가로 한영(+15.7%)이 가장 높음
- 업무별 매출 증가율은 감사부문은 안진(+17.6%), 세무부문은 삼일(+16.0%), 경영자문부문은 한영(+15.8%)이 가장 높음

<4대법인(개별) 업무별 매출액>

(단위 : 억원, %)

구분	감 사			세 무			경영자문			합 계		
	FY21	FY22	증감률	FY21	FY22	증감률	FY21	FY22	증감률	FY21	FY22	증감률
삼일	2,861	3,305	15.5	2,169	2,517	16.0	3,856	3,901	1.2	8,886	9,722	9.4
삼정	2,147	2,444	13.8	1,124	1,302	15.8	4,339	4,655	7.3	7,610	8,401	10.4
한영	1,757	2,050	16.7	531	594	12.0	2,077	2,404	15.8	4,364	5,048	15.7
안진	1,234	1,452	17.6	852	945	10.8	2,391	2,651	10.9	4,477	5,047	12.7
합계	7,999	9,250	15.6	4,676	5,357	14.6	12,662	13,611	7.5	25,337	28,219	11.4

라. 회계법인 영업이익 : 1,616억원 (△20.1%)

- 회계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총 1,616억원으로 전기(2,023억원) 보다 407억원(△20.1%) 감소
- 4대법인의 영업이익은 344억원으로 전기보다 582억원(△62.9%) 감소하였으나, 이외 등록법인 및 일반법인 영업이익은 전기보다 각각 111억원(+21.3%), 64억원(+11.1%) 증가

<회계법인 영업이익>

(단위 : 억원, %, %p)

구분	FY2020		FY2021		FY2022		전기대비 변동		
	금액	영업 이익률	금액 (A)	영업 이익률 (a)	금액 (B)	영업 이익률 (b)	금액 (B-A)	증감률 (B/A-1) ×100	영업 이익률 증감 (b-a)
등록법인(41사)	1,326	4.0	1,447	3.7	976	2.2	△471	△32.6	△1.5
4대법인	894	4.1	926	3.7	344	1.2	△582	△62.9	△2.5
4대법인외(37사)	432	3.7	521	3.8	632	4.1	111	21.3	0.3
일반법인	461	4.4	576	4.8	640	4.8	64	11.1	0.0
전체 회계법인	1,787	4.1	2,023	4.0	1,616	2.8	△407	△20.1	△1.2

- 회계법인 전체 영업비용은 5조 5,399억원으로 전기보다 6,450억원(+13.2%)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증가분(4,034억원)이 가장 큼

- 특히, 4대법인은 글로벌 멤버쉽 수수료(지급수수료) 증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출장비 증가, 경기불황에 따른 대손상각비 증가 등으로 인건비 외 영업비용도 전기보다 1,480억원(+19.5%) 증가

<회계법인 영업비용>

(단위 : 억원, %)

구분	FY2021		FY2022		전기대비 변동	
	영업 비용 (a)	인건비 (b)	영업 비용 (A)	인건비 (B)	영업 비용 (A-a)	인건비 (B-b)
등록법인(41사)	37,534	26,326	42,703	29,467	5,169(13.8)	3,141(11.9)
4대법인	24,411	16,802	27,875	18,786	3,464(14.2)	1,984(11.8)
4대법인외(37사)	13,123	9,524	14,828	10,681	1,705(13.0)	1,157(12.1)
일반법인	11,415	6,756	12,696	7,649	1,281(11.2)	893(13.2)
전체회계법인	48,949	33,082	55,399	37,116	6,450(13.2)	4,034(12.2)

* ()는 전기대비 증감률

3. 외부감사 수행실적

※ 218*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중 외감법에 의한 감사실적(임의감사 등 제외) 보고내용 분석

* 23.3월말 기준 220개사 중 정후('23.1월부터 사업 개시), 바로('22.12월 설립 되었으며, 9월말 법인) 제외

가. 외부감사 수행실적 : 총 32,478건 (+12.6%)

□ 전체 회계법인이 수행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실적은 총 32,478건으로 전기보다 3,626건 증가(+12.6%)하였고,

-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적은 총 4,883건으로 전기보다 432건 증가(+9.7%)

□ 4대법인의 감사실적은 개별재무제표 4,269건, 연결재무제표 1,413건으로 전기 대비 개별은 188건(+4.6%) 증가하고, 연결은 65건(+4.8%) 증가

- 전반적인 외부감사대상 회사수 증가로 4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도 모두 증가

* 한영 +62사, 삼정 +56사, 삼일 +53사, 안진 +17사

□ 한편, 등록법인의 감사실적은 개별 18,969건, 연결 4,136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4%, 84.7%이며 전기(60.2%, 85.7%) 대비 소폭 감소

<회계법인 외감법상 외부감사 수행실적>

(단위 : 건, %, %p)

구 분		FY2020		FY2021		FY2022		전기대비 증감			
		전체	상장*	전체	상장*	전체	상장*	전체	증감률	상장*	증감률
전체	개별	26,969	2,398	28,852	2,476	32,478	2,560	3,626	12.6	84	3.4
	연결	4,240	1,822	4,451	1,883	4,883	1,975	432	9.7	92	4.9
4대 법인	개별	3,907	735	4,081	801	4,269	809	188	4.6	8	1.0
	(점유율)	(14.5)	(30.7)	(14.1)	(32.4)	(13.1)	(31.6)	(△1.0)	-	(△0.8)	-
	연결	1,256	634	1,348	674	1,413	690	65	4.8	16	2.4
	(점유율)	(29.6)	(34.8)	(30.3)	(35.8)	(28.9)	(34.9)	(△1.3)	-	(△0.9)	-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회사

나. 평균감사보수 : 50백만원 (등록법인 74백만원, 4대법인 187백만원)

□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4.0%)

* 회계법인의 외감법 법정감사 매출금액 / 외부감사 실적

- 이는 감사투입시간의 증가, 자산규모가 큰 회사에 대한 감사가 전기보다 증가*하는 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회사 증가(+14사, +3.5%)

- 4대법인의 감사보수 상승률(8.9%)이 전년(6.0%)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新외감법 도입 직후와 비교하여 안정화되는 추세*

* 전기대비 감사보수 증가율 : 21.6%(FY19) → 21.2%(FY21) → 3.1%(FY21) → 4.0%(FY22)

<회계법인 외감대상회사 평균감사보수>

구 분	FY20	FY21	FY22	증감률
외감법감사 매출액(억원)	12,487	13,770	16,115	17.0%
등록법인	10,813	11,957	13,960	16.8%
4대법인	6,326	7,003	7,976	13.9%
감사실적(건)	26,969	28,852	32,478	12.6%
등록법인	16,527	17,383	18,969	9.1%
4대법인	3,907	4,081	4,269	4.6%
평균감사보수 (백만원)	46.3	47.7	49.6	4.0%
등록법인	65.4	68.8	73.6	7.0%
4대법인	161.9	171.6	186.8	8.9%

4. 소송 현황 및 손해배상 준비재원

가.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 ☐ 최근 3년간 감사업무 부실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종결된 소송건은 총 60건
 - 이 중 19건의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패소(일부패소 포함)하거나 화해로 종결되어 총 393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 344억원(안진, 일성·티브로드·한국수력원자력 관련), 35억원(삼정, STX조선해양 관련) 등
- ☐ 한편, '22사업연도말 현재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소송 진행중인 사건은 총 95건*이며
 - *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 안진) 4,039억원, 디아크(다산) 454억원, 파티게임즈(삼정) 207억원, 유양디앤유(한영) 68억원, STX조선해양(삼정) 5.7억원(주) 등
 - 주) 법원은 최근 집단소송 허가결정('23.10.18)
 - 소송금액은 5,243억원으로 전기보다 651억원 감소

<회계법인 소송현황>

구 분		FY2020	FY2021	FY2022	3년누계
종결	민사소송건수(피소종결건)	17	21	22	60
	- 패소(일부패소 포함)	6	5	4	15
	- 화해 등	1	1	2	4
	- 승소(기각, 각하 포함)	10	15	16	41
	손해배상금액(억원)	5	4	386	395
진행	소송건수	124	115	95	
	소송금액(억원)	9,592	5,894	5,243	

나.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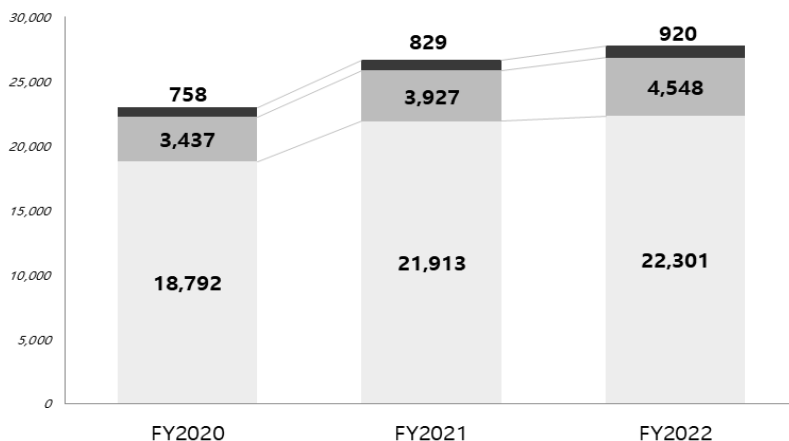
- ☐ '22사업연도말 현재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총 2조 7,769억원으로, 책임보험 2조 2,301억원(80.3%), 손해배상준비금 4,548억원(16.4%), 손해배상공동기금 920억원(3.3%)으로 구성
- ※ 회계법인은 외감법 제32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라 감사업무 등에 따른 고객 및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내부)을 유보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한국공인회계사회)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전기대비 증가(1,101억원, +4.1%)하였으며,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 * FY2020 22,987억원 → FY2021 26,668억원 → FY2022 27,769억원
 - 이는 4대법인이 달러로 약정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환율 상승*, 매출액 증가에 따른 손해

배상준비금 증가 등에 주로 기인

* (약정달러 평균) FY2021 1,260.6원/달러 → FY2022 1,311.3원/달러 등 평균 4.0% 상승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추이>

(단위 : 억원) ■ 손해배상책임보험 ■ 손해배상준비금 ■ 손해배상공동기금



- 그 중 4대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2조 927억원으로 전체의 75.6%에 해당
- 감사보수 총액 대비 손해배상 준비재원 설정비율은 4대법인은 262.4%*로 4대 이외 등록 회계법인(86.1%)**과 큰 차이를 보임

* (2조 927억원/7,976억원) × 100 / ** (5,150억원/5,984억원) × 100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단위 : 억원, %)

구 분		FY2020	FY2021	FY2022	전기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	손해배상책임보험	18,792	21,913	22,301	388	1.8
	손해배상준비금	3,437	3,927	4,548	621	15.8
	손해배상공동기금	758	829	920	91	11.0
	합 계	22,987	26,668	27,769	1,101	4.1
4대 법인	손해배상책임보험(비중)*	16,032(85.3)	17,929(81.8)	18,682(83.8)	753	4.2
	손해배상준비금(비중)*	1,677(48.8)	1,876(47.8)	2,192(48.2)	316	16.8
	손해배상공동기금(비중)*	50(6.6)	51(6.2)	53(5.8)	2	3.9
	합 계(비 중)*	17,758(77.3)	19,857(74.5)	20,927(75.4)	1,070	6.0

* ()는 전체 회계법인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중 4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5. 기타 정보

- ※ 감사품질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2019 사업연도로부터 이사보수,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 신규 공시사항 확대

가.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이사 : 총 198명, 평균 8.2억원

- 2022사업연도 중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이사는 31개 회계법인 소속 총 198명으로, 이 중 4대법인이 132명(66.6%)
 - 전체 회계법인에서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이사의 보수 평균은 약 8.2억원이며, 삼일이 52명으로 최다 인원을 공시

< 회계법인 이사보수 공시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등록 회계법인						일반 법인	합계
	4대법인					4대법인의외 (37사)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소계			
인원	52	40	24	16	132	56(18)	10(9)	198
총액	453.6	308.2	211.3	146.0	1,119.0	400.2	96.1	1,615.3
평균	8.7	7.7	8.8	9.1	8.5	7.1	9.6	8.2

* ()는 법인수

나. 품질관리 예산 비중(평균) : 전체 예산의 3.2% (4대법인 3.3%)

- 등록법인이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3.2%*이며, 이 중 4대법인은 평균 3.3%로 전기(3.7%)에 비해 감소
 - * 총 인건비 대비 품질관리실 인건비
 - 전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예산은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담당직원의 경력 및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1~3% 수준

II 시사점

① 회계법인 매출은 증가추세이나 영업이익은 큰 폭 감소

- 新외감법 시행 및 외부감사대상회사 증가 등으로 외부감사부문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전체 매출액의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
 - * 감사부문 매출 전년대비 증가율 : 15.8%(FY20) → 11.7%(FY21) → 16.7%(FY22)
 - ** 전체 매출 전년대비 증가율 : 11.3%(FY20) → 16.8%(FY21) → 11.9%(FY22)
- 한편, 인건비*, 지급수수료, 경기불황에 따른 대손상각 및 출장비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



* 인건비 : 33,082억원(FY21) → 37,116억원(FY22)

** 영업이익 : 1,787억원(FY20) → 2,023억원(FY21) → 1,616억원(FY22)

- 향후 회계법인의 수익성 감소가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체계를 공고히 유지할 필요

② 회계법인의 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4대 회계법인의 경우 5년 미만의 저연차 회계사가 57.8%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미만 수습회계사의 89.2%가 근무
- 숙련도 부족에 따라 회사의 수검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일부 민원제기도 있어 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 중요 계정과목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③ 부실감사 관련 책임 확대

-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이 지속 제기되고 실제 부실감사관련 책임이 현실화 됨에 따라 회계법인은 보다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과 더불어 배상능력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

④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소폭 증가

-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보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4대법인의 증가율*이 높았음
 - * 4대 회계법인의 평균 감사보수 전년대비 증가율 : 8.9%
-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감사위험과 무관하게 부당한 감사 보수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⑤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충실한 작성 필요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는 감사인 선임 기초자료 및 감사품질 판단자료로 활용되는 바, 충실하고 정확한 작성·공시 필요
- 특히, 외주용역을 주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특수관계자와 용역거래 등을 하는 경우 주석공시를 정확히 할 필요*
 - * 과거 지적사례 : 회계법인 임원이 지배하는 기업 관련 자금대여, 채권·채무잔액, 매입내역 등을 주석으로 미공시

⑥ 경영자문 등 비감사업무 수행시 위험평가 등 점검강화 필요

- 회계법인의 경영자문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중 비중은 2021회계연도부터 감사부문 매출비중을 상회
 - * FY22 부문별 매출비중 : 경영자문 35.2%, 감사 33.9%, 세무 27.7%
-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 수임시 위험평가 및 독립성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여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